

명례방 모임

(구역 모임)

2026.09.



브루클린교구 베이사이드 한인천주교회

1. 시작기도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되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 + 기도합시다.
- ◎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2. 말씀 나눔

- 1) 말씀 듣기 : 로마 8,31-39(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2독서)
- 2) 침묵 후 다시 한번 말씀 봉독
- 3) 말씀 나눔

<묵상 더하기>

- 어떤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나요?
- 순교자의 삶을 생각하며, 내 삶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실패 안에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 4) 자유 기도

3. 본당 공지사항 및 구역별 공지사항

- 9/20(주일) 16:00에 본성전에서 브루클린교구 한인공동체 순교자현양 미사가 있습니다. 이번 미사에는 교구장 주교님께서도 함께하십니다. 미사 후,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11(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30주년 바자회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미리 준비하시어 참여부탁드립니다.

- 30주년 기도봉헌과 성경읽기/쓰기 봉헌, 특별히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성모님 순례에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4. 마침기도(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무수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 이제 저희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며
당신의 뜻에 맞갖은 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삶의 무게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를 굽어보소서.
- 주님, 저희가 이 은총의 시기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일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주님을 알고도 떠나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본당의 주보 성인이신 성 로버트 벨라민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5. 사목단상

스스로도 제 삶을 돌아볼 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실감합니다. 많은 경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이익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계산합니다. 순식간에 득과 실을 따져보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입니다. 그런 저의 반응에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도와 성찰은 빠져있었던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구약의 구리뱀과 로마제국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하느님께 봉헌하면, 곧 하느님의 손을 거치고, 들어올려지면, 구리뱀도, 예수님 달려계신 십자가도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각자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려 할 때, 나혼자 짊어지려 할 때, 내가 원하는 해결책을 정해놓고, 그것에 이를 때까지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혹은 악화되면, 마음에 고통만 더해집니다. 십자가가 '나'에게만 머물 때, 늘 애쓰는 것은 '나'이고, 버터내는 것도 '나'이고, 그렇게 점점 '나'의 자리만 커져갈 뿐, 하느님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느님께 기대어 그분과 함께 짊어지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지 묻게 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건이나 사람, 혹은 상황 자체가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정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 한국의 수많은 신앙의 성인들은 이를 명확히 알아보셨고, 이를 삶으로 드러낸 이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9월, 기도 중에 한국의 순교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을 따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